



성전에서
환전상을 끌어내시는 그리스도
작가 미상, 1570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뜻짙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탈출기 20,1-17

화답송



(후렴) 주 님, 당신께 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 이 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흡수를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코린토 1서 1,22-25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 요한 2,13-25

성가 | 입당성가 [116]1,2 예물준비 [215]

영 성 체 [165] 파견성가 [116]3,4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이흥근 안드레아	주바울라
임순남 엘리사벳	익명
임순남 엘리사벳	이수산나
송재숙 크리스피나	송준호 바오로
김인호 안토니오	김기덕 스테파노
생미사	봉헌
이경자 올리안나	김영희 클라라
이경자 올리안나	안영옥 분다
유경자 데레사	김영희 클라라
이중근 요셉	익명
강명옥 프란체스카 빠른퀘유	울뜨레야
정희자 리드뷔나	김미화
이영혜 안젤라 가족	제의방
정승연 플로라, 김민경 바실리아	익명
이신혜 대데레사, 이루다 루시아	익명
성주아 올리안나, 최예준 사도요한	익명
김의재 안젤로, 배수아 마들렌소피바라	익명
민재인 데레사 생일	이영노 올리안나
함승연 마르타 영육건강	이영노 올리안나
이예진 유스티나	복사단
표해심 카타리나 영육건강	윤루시아
진달래 아가다	희망의 모후
방상욱 피터 감사	익명
김효주 수녀 영육건강	익명
김효주 수녀	학부모회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	성찬 봉사	복사
3월 3일	김유화	강호영	민덕미	민덕미	김종선	한데레사 이유스티나
3월 10일	정유진	민완준	김미혜	김미혜	유정옥	한데레사 이유스티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견진 교리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43,715단

▶3월 영명일 맞으신 분들, 축하와 기도드려요~

3.1 알비노(양제의 주교) 3.3 가밀라 3.4 가시미로
3.7 빠르빠뚜아 3.9 프란치스카로마나 3.14 마틸다
3.17 패트릭, 안젤로 3.19 요셉 3.25 성모님 축일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공동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 08시 50분부터 대성당에서 십자가의 길이
봉헌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3/03(일)	요셉회, 성모회	각 단체마다
3/10(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4명 필요 :
3/17(일)	울뜨레아	십자가 1
3/24(일)	사목회	주송1, 초2

▶청년 판공성사

3월 9일(토), 청년미사전 4:30pm~6pm
Fr.황필구(브루클린 St. Anselm 성당), Fr.김진열 가롤로

▶판공 성사표

사순시기 동안 보신 고해성사는 모두 판공성사로 간주됩니
다. 본당 또는 다른 곳에서 고해 성사를 보신분은 사무실앞
에 비치된 '판공성사표'를 작성하시어 넣어주세요



▶사순시기에 함께 실천해요~

1)커피 한잔등의 기호를 줄여 공동체 모금 활동에 기여:
사순 저금통 2)건강등의 이유로 미사, 공동체 모임 참여가
불가능한 분들께 후보 보내기

▶Youth 교리반(교리와 활동) 개학했어요

6학년이상~ 12학년까지, 영어권의 모든 청소년들 환영합니다~
모임: 미사후 성당 뒤에서, 교사를 만나 교육관 3A로 이동
합니다. *교리참석자중 견진 대상자들은 2024년 3월 30일
(부활성야 미사)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
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맨하탄 성령기도회 모임

매월 3째주 화, 찬양과 미사: 6:30pm~8:00pm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성기도, 심령기도, 성경묵상, 찬양, 미사
드리는 기도회로 초대합니다.

▶청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활동: 매주 회합을 통해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 원천Pr.
매주일 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929-208-5147

▶3월 유아세례 일시: 3/10(주일) 09:15 미사중

▶봄이 오는 소리~

다음 주일(3월 10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오니, 미사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중심 제대

제대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재현되는 제사의 자리이자 하느님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또한 제 관이며 동시에 제물이신 예수님의 상징으로서 성전과 성찬례의 중심점입니다. 제대는 전통적으로 식탁, 무덤 그리고 제사상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갖습니다.

식탁으로서의 제대는 최후 만찬에서 기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역시처음에는 가정에서 성찬례를 거행하였는데, 이 전례는 친교의 식사와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박해 시대에는 카타콤바의 순교자들 석관 위에서 성찬례를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콘스탄티누스대제(306~337 재위)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제대는 새롭게 변화 됩니다. 먼저 나무 제대가 사라지고 견고한 돌이나 대리석 등으로 된 제대가 등장했으며, 지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유해와도 연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제대가 그리스도의 구성원 없이는 불완전한 걸로 간주 되었는데, 순교자들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구성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없는 나라로 떠난 선교사들이나 십자군 같은 군인을 위해 나무 제대가 계속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맞게 '특별한 형태의 제대', 곧 주교가 축성한 후 사제가 가지고 다니는 직사각형이나 정방형의 돌판(聖石)이 고안되기도 하였습니다.

제대와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① 오직 하나의 제대 : 과거에는 하나의 성당 안에 중앙 제대와 측면 제대들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 짓는성당에는 하나의 제대만 설치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고 교회의 성찬례도 하나임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성당에 다른 제대를 설치할 때는 대성전과 공간이 확실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대는 신자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지나치게 길지 않으며, 품위 있고 단순한 모양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어야 합니다.

② 제대의 위치 : 제대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고정식이 권장되지만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제가 그 돌레를 쉽게 돌 수 있고 성찬례 때 신자들을 향할 수 있게 벽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성전의 중심에 자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공간의 중심이나 중심축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치상 전체 신자를 잘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③ 유해 : 「미사경본 총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대를 봉헌할 때 제대 밑에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성인들의 유해를 모시는 관습은 적절하게 보존한다. 그러나 그 유해가 참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302항). 그런데 성인 유해의 안치 여부가 제대의 품위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당과 제대봉헌 예식」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육신이 제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가 순교자들의 무덤을 영광스럽게 한다”(제4장, 5항); “순교자들을 기리며 제대를 설치할 때는, 결코 어떤 순교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순교자들의 하느님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제4장 10항).

이 같은 이유로 성인들의 유해를 현시할때는 제대 위가 아닌 다른 곳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제대 위에서 신비로이 거행되는 성체성사에 더욱 자주 그리고 정성껏 참여하도록 합니다.